

昆支의 渡倭와 그 후손들

박재용*

〈목 차〉

- I. 머리말
- II. 곤지의 渡倭 배경과 목적
- III. 곤지의 귀국과 동성왕의 즉위
- IV. 곤지의 왜국내 활동과 그 후예씨족
- V. 맺음말

국문요약

昆支는 5세기 후반 왜국으로 장기간 파견되었다. 이는 곤지의 백제 내 세력을 억제하고 자신의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기 위한 개로왕의 조치였다. 곤지는 河內飛鳥 지역에 정착한 후 그곳의 백제계 이주민들을 보호·결속시키면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곤지는 왜국에 체재하면서 후손을 형성하게 되고, 백제 내 세력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국내외적으로 지지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웅진초기 대내외적 혼란한 속에서도 아들인 동성왕이 즉위할 수 있었다.

왜국 내에서는 飛鳥戶造氏라는 후예씨족이 곤지의 명맥을 잇게 된다. 비조호 조씨는 河內國 安宿郡에 기반을 두고 大和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후 奈良·平安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령관인들을 다수 배출하는데,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백제 곤지의 후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곤지의 후손들은 고대 일본에 백제색이 농후한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주제어 : 곤지, 개로왕, 동성왕, 무령왕, 飛鳥戶造, 河內, 安宿郡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I. 머리말

백제 한성시대 말 웅진시대의 초기에 걸쳐 16년간 왜국에 체재했던 개로왕의 동생 昆支¹⁾라는 인물은 백제사뿐만 아니라 고대한일관계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가 비유왕이고 개로왕과 문주왕이 형제이다. 게다가 그의 왜국행 도중에 무령왕이 출생했다는 전승이 있고, 왜국 체재 중에 태어난 末多(동성)가 백제왕으로 즉위하는 등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곤지는 개로왕대 左賢王을 관창할 만큼 백제 내에서 서열 2인자라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왜국행은 당시 백제의 대내외 관계에서 중요한 정치·외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곤지가 활동하던 시기인 5세기 후반은 백제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하는 집단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였다. 이에 왜국 특히 河内 지역의 문화가 번영하면서 고대 일본의 국가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곤지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적다. 그나마 곤지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渡倭 관련 기록도 720년 편찬된 『日本書紀』에만 보인다. 여기에 곤지와 주변 백제왕의 계보가 한중일 사료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주왕의 즉위 배경과 무령왕의 출자 문제, 곤지의 渡倭 이유와 귀국 후 갑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동성왕과 무령왕의 즉위 배경 등 많은 부분의 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²⁾

무엇보다 『일본서기』의 한반도관계 기사는 천황중심 사관에 입각해 윤색된 부분이 많아 곤지 관련 기록 역시 사료적 신빙성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백제왕 계보문제 등은 『일본서기』가 『삼국사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료부족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곤지의 渡倭 배경과 그 후손들의 활동양상을 통해 곤지의 도왜가 양국 사이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昆支라는 인명은 『삼국사기』에 의거한다. 한편 중국측 사료에는 餘困, 일본의 경우 『일본서기』에는 軍君·昆支王, 『백제신찬』에는 昆支君, 『신찬성씨록』에는 琨伎王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2) 이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박재용의 『일본 사료로 본 백제 熊津시기 왕계』(『한일관계사연구』61, 한일관계사학회, 2018)를 참조하기 바람.

II. 곤지의 渡倭 배경과 목적

곤지의 왜국행과 관련된 기록은 『일본서기』에만 보이는데 그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A-① 백제의 加須利君(蓋鹵王이다)은 池津媛이 화형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適稽女郎이다) “예전에 여인을 바쳐서 采女로 삼았다. 그런데 무례를 범하여 우리나라의 이름을 실추시켰다. 앞으로 여자를 바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아우 軍君(昆支이다)에게 “너는 마땅히 일본에 가서 천황을 모셔라.”고 명하였다. 군군은 “上君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君의 부인을 내려주신다면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가수리군은 즉시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보내며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산달을 맞이하였다. 만약 도중에 출산하게 되면, 부디 한 배에 태워서 어디에 있더라도 속히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서로 이별의 말을 나누고 조정으로 향했다. <웅락천황 5년(461) 하4월조>
- A-② 임신한 부인은 가수리군의 말처럼 筑紫의 各羅島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에 그 아이 이름을 島君이라 하였다. 이때 군군은 즉시 배 한척을 마련하여 도군을 나라로 보내었다. 이가 武寧王이다. 백제인은 그 섬을 主島라고 불렀다. <웅락천황 5년 6월조>
- A-③ 군군은 京으로 들어왔다. 이윽고 다섯 명의 자식이 있었다.<『百濟新撰』에서 말하기를 “辛丑년에 개로왕은 아우 昆支君 보내 大倭에 보내어 天王을 섬기면서 兄王의 우호를 닦도록 하였다고”고 한다.> <웅락천황 5년 추7월조>
- A-④ 이 해에 백제 末多王이 무도하여 백성에게 포학한 짓을 하였다. 國人은 마침내 제거하고 嶋王을 세웠다. 이가 武寧王이다. <『백제신찬』에 이르길 말다왕은 무도하여 백성에게 포학한 짓을 했다. 그리하여 국인이 함께 제거하였다. 이후 무령왕이 즉위하였다. 휘는 斯麻王이다. 이 사람은 昆支王의 아들이다. 즉 말다왕의 異母兄이다. 곤지가 倭로 향할 때 筑紫嶋에 이르러 사마왕을 낳았다. 섬에서 돌려보냈다. 경에 이르기 전에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 지금도 各羅의 바다에는 主嶋가 있다. 왕이 태어난 섬이다. 이에 백제인은 주도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嶋王은 개로왕의 아들이다. 말다왕은 곤지왕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모형이라하는 것은 未詳이다.> <무열천황 4년 시세조>

사료 A-①에 의하면 곤지가 왜국에 파견된 직접적인 이유의 하나로 池津

媛이 無禮³⁾를 범하여 화형당하였다는 사건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無禮에 대한 내용은 大和정권이 백제를 복속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서술된 것이다.⁴⁾ 또한 백제측에서 보낸 공녀를 采女로 삼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채녀에 대한 체계화는 壬申의 亂 후에 관인 임용제도가 본격화하는 7세기 후반 천무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⁵⁾ 이 기사는 『일본서기』 찬자의 후대사관에 의해 윤색이 가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진원 파견이 백제가 태자 전지의 파견 이후 王女를 대신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⁶⁾에 따르면 나름대로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즉 백제가 지진원을 왜국에 보낸 것은 통혼관계를 통해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왕녀를 보내던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격을 높여 왕제인 곤지를 파견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⁷⁾ 이와 같이 백제가 왕족을 왜국에 보냄으로써 양국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 5세기 대 백제의 대외 외교의 기본틀이라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위의 사료 A에 보이는 가수리군은 개로왕, 도군은 무령왕이며, 군군(곤지군)은 곤지를 가리킨다. 등장인물들이 ‘君’과 ‘王’으로 칭해지고 있는데, ‘君’은 사료상 『일본서기』에만 보이는 백제왕족에 대한 호칭이다.⁸⁾ 여기서 軍君이라는 명칭은 군사권을 지닌 임금이라는 뜻일 것이다. 실제 곤지는 개로왕 4년(458)

3) 『일본서기』에는 웅신 8년 3월조에 아화왕이 왜에 무례했기 때문에 왜가 동한지, 침미다례, 현남, 지침, 곡나를 침탈하자 전지(직지)가 파견되었다는 기사가 있고, 웅신 25년 무례를 이유로 목만치를 왜국으로 소환하는 기사가 있으며, 인덕 41년 3월조 주군이 무례하여 소환하는 기사 등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

4) 서보경, 『도왜한 백제계 한인과 하나-백제 왕족의 도왜와 관련하여-』, 『사총』6, 2009, 12쪽.

5) 이정희, 『古代 日本의 采女制度』, 『日本學報』44, 2000, 585~587쪽.

6) 양기석, 『5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77~78쪽.

7) 웅략 5년 4월조의 기록에 대해 지진원의 도왜는 429년으로 비유왕대의 일이기 때문에 곤지의 도왜사정을 지진원의 일과 결부시키고 있는 『일본서기』 기술은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보는 견해(연민수, 『5세기후반 백제와 왜국-곤지의 행적과 동성왕의 즉위사정을 중심으로-』, 『일본학』13,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4, 284쪽)도 있다.

8)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군 칭호에 대해서는 왕족의 분화를 보여주는 실례로 주목하거나(노중국, 『무령왕대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 『백제무령왕릉』,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1, 44쪽), 일본측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곤지가 왜국내에서 도래인 집단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민수, 앞의 논문, 1994, 303~307쪽). 그러나 도래인 집단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알 수 없고, 탄생과 동시에 백제로 돌려보내졌다는 무령왕이나 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개로왕에게도 가수리군이라는 칭호가 붙었기 때문에 군 칭호를 단지 왜국 내에서의 도래인 집단과의 관계에서만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심의 논고(『백제의 ‘君’호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백제연구』48, 2008)를 참조.

송나라에 관작을 요청한 行征虜將軍 左賢王 餘昆과 동일한 인물이다.⁹⁾ 좌현왕은 흉노나 돌궐 등 유목민족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관작으로 왕의 후계자이며 군사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따라서 곤지는 왜에 파견될 때 왕위 계승권을 가진 백제 2인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러한 곤지는 『일본서기』 기록인 A①~③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개로왕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문주와 곤지가 개로왕의 아들이며 곤지는 문주의 동생으로 나온다.¹²⁾ 통상 王弟가 역임하는 내신좌평 내지 상좌평을 개로왕 당시에는 문주가, 문주왕대에는 곤지가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주와 곤지 모두 개로왕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중있는 인물을 백제에서 왜 파견하였을까 궁금하다. 지금까지 곤지의 파견목적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크게 왜국과의 우호관계 도모와 같은 외교적인 목적을 우선시하는 입장¹³⁾과 백제 내부의 대립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임을 강조한 입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당시 백제의 개로왕이 고구려와의 만성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왜국과 긴밀히 협력하려 했던 정황을 주목한 것이다. 사실 왜국과의 공조 강화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왕위계승자를 왜국에 보낸 예는 백제사에서 종종 보이는 현상이다. 사안의 중대

9) 이기동, 『중국사서에 보이는 백제왕 牟婁에 대하여』, 『역사학보』62, 1974, 30~33쪽.
 10) 坂元義種, 『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朝鮮史研究會論文集』4, 1968, 56쪽.
 11) 정재운, 『백제 왕족의 왜 파견과 그 성격-곤지를 중심으로-』, 『백제연구』47, 2008, 4쪽.
 12)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즉위년조 “文周王<或作汶洲> 蓋鹵王之子也”; 동성왕 23년조 “又按牟大蓋鹵王之孫 蓋鹵第二子昆支之子”; 동성왕 즉위년조 “東城王諱牟大<或作牟牟> 文周王弟昆支之子” 참조.
 13) 구체적으로 유사시의 청병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다거나(양기석, 『三國時代 人質의 성격에 대하여』, 『史學志』15, 1981, 55~56쪽;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한국사연구』50, 1985, 13쪽;鈴木靖民,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政權』, 『講座 日本歴史』1, 東京大學出版會, 1984, 202~206쪽;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158~160쪽), 河內 飛鳥에 정착하여 일본열도 내 백제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흡수 관리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기도 한다(山尾幸久, 앞의 책, 1989, 136~139쪽; 이도학,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1996, 199쪽). 그 연장선장에서 河內지역의 백제계 이주민을 규합하여 백제를 지원하고, 왜국도 백제계 도왜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곤지의 도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정재운, 『웅진시대 백제 정치사의 전개와 그 특성』,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9~30쪽; 『백제왕족의 왜 파견과 그 성격』, 『백제문화』47, 2008, 18~20쪽). 이밖에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 유지와 백제 중심의 국제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이재석, 『곤지의 도왜시점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 『백제문화』30, 2001, 24~29쪽), 왜 정권 내 친백제 노선을 유지케 하려는 왕족 외교의 일환(김현규, 『백제와 일본간의 왕실외교-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31, 2002), 또는 혼인의 목적이 중요했다는 견해(홍성화, 『웅진시대 백제의 왕위계승과 대외관계』, 『백제문화』45, 2011) 등에 제시되었다.

성에 비추어 최고위층 인물이 외교사절로서 선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곤지를 왕권의 핵심부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 개로왕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을까 한다.¹⁴⁾ 왜냐하면 현실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에 체류하면서 우호관계를 계속 도모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병사로 파견된 것이라면 가족까지 대동한 것이 어색하다. 따라서 군사지원이나 모종의 외교적 임무 외에 다른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당시 백제왕권을 구성하고 있던 세력으로는 왕을 정점으로 그 밑에 왕족, 귀족들로 구성된 상좌평을 필두로 하는 좌평그룹과 고위관인층이 있었다. 권력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이들 관인층은 왕권을 보좌하는 세력이면서도 동시에 왕권을 견제하고 위협하는 세력이기도 했다. 백제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의 권위를 빌렸다. 예컨대 중국과 주변제국 사이에서 통용되던 책봉체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송서』백제전에 의하면 大明원년(개로왕3, 457)에 개로왕은 자신 휘하 11인의 신료집단에게 중국의 작호를 제수해 줄 것을 송 황제에게 요청한다. 이 중에서 餘昆은 左賢王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 개로왕에 이은 실질적인 2인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개로왕이 송조에 신료들의 작호를 요청할 때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 등 11인’이라 하여 餘紀를 필두로 하여 상표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지만 餘紀는 개로왕의 장자로서 475년 고구려에 의하여 백제의 한성(漢城)이 함락될 때 개로왕과 운명을 같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개로왕이 후임자로 곤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추측을 자아낸다. 여곤보다 하위의 장군호를 제수받은 여기가 대표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백제왕권내의 현실적인 力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곤지가 지나치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탓에 개로왕은 곤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유력한 차기왕위 계승자인 곤지를 배제시키지 않고는 자신의 적장자를 왕위에 즉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진원의 사망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로왕에게 호기였을 것이다. 개로왕은 앞으로 왜국에 여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곧바로

14)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414~417쪽; 주보돈,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3, 197~198쪽; 김영심, 『개로왕대 정국의 동향과 체제정비』, 『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개로왕의 꿈, 대국 백제』, 한성백제박물관, 2016, 115~116쪽.

왕제인 곤지를 왜에 파견한다.¹⁵⁾ 곤지에게 내려진 특명은 ‘兄王의 수호를 닦는다’는 것, 즉 왜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한 외교임무를 전개하라는 것이다. 이는 형식상의 명령으로 개로왕의 숙내는 餘紀에게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닌가 한다. 즉 개로왕은 왜국과의 관계유지라는 목적과 함께 곤지를 합법적으로 권력의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왜국에 장기파견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는 왜국에 파견된 곤지는 王京에서 왜왕을 만나고, 대화조정의 수도가 아닌 백제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던 河內¹⁶⁾의 飛鳥에 정착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곤지의 직계본종이라고 주장하는 飛鳥戶造씨의 본관이 하내 비조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타국의 왕족이 외교사절로서 장기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되었다면 수도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왜국의 상황은 달랐다. 여기서 곤지 일행이 하내지역에 머무르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왜국의 의도적인 정책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 시기 많은 백제계 씨족들이 하내지역에 분포한다는 사실과 후대의 역사이지만 7세기 후반 백제의 멸망이후 왜국으로 건너간 많은 귀족들이 왜국 조정의 계획적인 이민정책에 따라 수도 주변지역에 정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¹⁷⁾

어쨌든 하내에 정착한 곤지는 백제계 이주민들을 보호, 통솔·관리하면서 그 집단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⁸⁾ 따라서 하내비조 문

15) 지진원의 살해사건을 곤지의 대외 파견과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견해도 있다. 공녀 살해 사건이 너무도 황당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주보돈, 『개로왕의 체제개혁과 그 한계』, 『한성도읍기의 백제』, 2007, 345쪽).

16) 고대에는 ‘가와치’라고 하며 현재 大阪府 南東部に 해당한다. 이곳은 瀬戸内海를 통해 오사카에 진입하는 해로 교통상의 요지이자 畿内 세력의 중심지였던 대화조정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그 북부에서 흘러드는 하천인 淀川과 大和川 등이 오사카만에 유입되면서 광대한 충적 저습지가 펼쳐져 있었다. 5세기 중반 이후 백제 도왜인들이 이곳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 백제 도왜인들이 가져온 새로운 생산 기술과 문화는 고대 일본 사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정도로 획기적인 충격이었다.

17) 백제계 이주민과 결합한 지진원을 화형시킨 것은 당시 왜국이 송나라에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왜왕이 이에 반발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곤지의 도왜는 왜의 군사지배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되었다고 본 견해(김수태,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백제학보』6, 2011)를 참조하면 당시 백제와 왜국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18) 하내비조의 전체 씨족수 중 한국계는 37%로 고구려가 5씨, 신라가 7씨, 백제가 23씨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안숙군에 분포하는 씨족은 14씨족인데 백제계 씨족이 飛鳥戶造·田邊史 등 9씨로 64%를 점하고 있다(山尾幸久, 1989, 앞의 책, 136~139쪽을 참고로 낸 필자의 통계임).

화가 백제색을 농후하게 띠게 된 데에는 곤지와 같은 왕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Ⅲ. 곤지의 귀국과 동성왕의 즉위

곤지는 문주왕 3년(477) 4월에 內臣佐平에 임명되었다는 기록¹⁹⁾이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477년 이전에는 백제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곤지는 461년 渡倭 후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왜국에서 체재하고 있다가, 한성함락과 개로왕의 피살이라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문주왕의 부름을 받고 내신좌평의 자리에 올라 백제왕권의 핵심인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곤지의 귀국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문주가 백제왕권 내외부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한편 곤지의 재등장은 解仇를 중심으로 한 응진의 귀족세력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개로왕대에 좌현왕의 지위에서 왕권을 보좌하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권력구조상 귀족세력과는 상충하는 위치에 있었다. 왕권을 조종하던 해구 일파에게 곤지의 복귀는 달갑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곤지는 내신좌평에 보임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망한다. 권력투쟁 와중에 당시 문주왕을 시해할 정도로 전횡을 일삼던 해구에게 피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왜국에 장기간 체재하고 있던 곤지로서는 왕권 내의 뿌리 깊은 귀족세력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듯하다. 실권을 잃은 문주왕도 477년 9월 해구가 보낸 자객에 의해 시해당하고 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응진천도 이후의 백제왕권 내부의 불안정한 政情을 말해주고 있다.

곧바로 문주왕의 아들인 13세의 삼근왕이 즉위를 하지만, 그도 479년 돌연 사망한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며,²¹⁾ 따라서 다시금 왕위계승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삼근왕의 사망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정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²²⁾ 이 시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19)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3년 하4월조 “拜王弟昆支爲內臣佐平”

20) 이도학, 앞의 논문, 1985, 14쪽; 연민수, 앞의 논문, 422쪽;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50쪽; 정재윤, 『文周三斤王代 解氏 세력의 동향과 昆支系の 등장』, 『사학연구』60, 2000, 20쪽.

21) 양기석, 『응진천도와 중흥』, 『삼국의 정치와 사회』Ⅱ, 국사편찬위원회, 1995, 66쪽; 김기섭, 『백제 東城王의 즉위와 정국변화』, 『한국상고사학보』50, 2005, 12쪽.

인물이 왕위 계승 권리가 있었던 곤지의 자식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곤지는 왜국에서 5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 가운데 유소년기를 왜국에서 보낸 동성왕이 문주왕에 이어 삼근왕까지 돌연 사망하자 479년 백제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혼란한 백제로 귀국한다. 이미 아버지인 곤지는 백제로 귀국한 후 사망한 뒤였다.

동성왕이 곤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두 기록 모두 일치한다. 『삼국사기』의 답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활솜씨가 백발백중이었다고 인물평과 『일본서기』의 ‘幼年聰明’이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王者의 자질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일 것이다. 동성왕은 왜국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왕위계승자로 결정된 후 본국으로 돌아와 즉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이복형인 무령왕이 생존하고 있었다.²³⁾ 그럼에도 동성왕이 먼저 즉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²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듯하다.

먼저 무령왕과 동성왕의 관계가 異母兄弟라는 점을 주목하면 두 사람의 출신문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복동생인 동성왕이 먼저 즉위한 사정만으로 미루어 동성왕이 곤지의 적장자였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무령왕이나 동성왕의 모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는 더 이상의 추론은 무의미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곤지의 도왜 이후 부인을 왜왕실의 여자로 보는 연구²⁵⁾가 있다. 왜에서 태어난 동성왕과 왜왕권의 근친관계를 주목한 것인데 곤지의 후손들이 『신찬성씨록』 등에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곤지가 머문 지역이 당시 수도인 飛鳥가 아니라 河內 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곤지와 동성왕이 왜왕권과 연계되어 있었음에도 그 대표적인 후예씨족인 飛鳥戶造씨

22) 노중국, 앞의 책, 1988, 151쪽 ; 정재운, 앞의 논문, 2000.

23) 무령이 왕위 즉위 전까지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현 시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백제로 돌아왔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유일하지만, 기록 전체가 윤색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한편 무령왕이 출생하였다고 하는 各羅島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현재 佐賀縣 東松浦郡에 있는 加唐島로 보기도 한다(이도학, 『새로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185~186쪽 ; 이재석, 앞의 논문, 2001, 21~22쪽 ; 윤용혁, 『무령왕 출생전승에 대한 논의』, 『백제문화』32, 2003).

24) 동성왕의 즉위과정에 대해서는 眞氏를 중심으로 한 귀족에 의한 왕립설(이도학, 앞의 논문, 1984, 15~17쪽 ; 노중국, 앞의 책, 1988, 151~152쪽), 木氏에 의한 왕립설(山尾幸久,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書店, 1975, 35쪽), 곤지세력 기반설(정재운, 앞의 논문, 1999, 86~88쪽), 왜국과의 교류로 고구려에 대항하려는 지배층에 의한 왕립설(김기섭, 앞의 논문, 2005, 13~16쪽), 백제와 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 필요했다는 설(연민수, 앞의 논문, 1998, 427쪽) 등이 있다.

25) 홍성화, 『백제와 왜 왕실의 관계-왕실간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310~312쪽.

의 姓(카바네)이 비교적 낮은 ‘造’라는 점 등은 동성왕과 왜왕실의 연결을 단언 짓기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곤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국내 세력들이 동성왕 즉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⁶⁾ 사실 동성의 즉위과정은 한성시대 왜국에서 귀국하여 왕위계승의 내분을 수습한 후 즉위하는 전지왕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즉 아신왕이 사망하자 仲弟 訓解가 왜에 머물고 있던 태자 전지의 환국을 기다리며 섭정을 하는 사이 季弟 설례가 정변을 일으켜 왕이 되면서 당시 백제의 지배세력은 계제 설례와 태자 전지를 지지하는 파로 양분되어 대립한다.²⁷⁾ 결국 국 전지는 혼해로 대표되는 왕족과 전지의 귀환 시 그를 호위하는 왜병 100명, 국경까지 와서 백제 정국 상황을 보고하는 한성인 해충 등의 절대적 도움으로 설례를 축출하고 왕위에 즉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성도 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왜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국내에 있었던 지지세력들이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성왕이 귀국할 때 왜왕이 친히 불러 대면했다는 내용과 500명의 군사를 팔려 보내 호위하도록 한 내용의 『일본서기』 기사는 사료상의 윤색은 있지만 동성이 왜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버지인 곤지는 비록 반망명적 파견이었지만 백제계 이주민들의 결속을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문화에 대한 왜국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켜 왜 왕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왜국에서 후손을 형성하고, 왕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정치세력파도 연결을 가짐으로써 국내외에 지지기반을 구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국 출생의 동성왕이 백제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곤지의 백제와 왜국 내에서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79년 즉위한 동성왕은 501년에 昔加에 의해 시해되었고,²⁸⁾ 무령왕은 이를 계기로 백제 제25대왕으로 즉위한다.

26) 동성왕 즉위 이후 요직에 등용되는 인물들을 곤지계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삼근왕대 해구가 반란을 일으키자 직접 진압에 나서는 좌평 진남과 덕술 진로를 들 수 있는데, 곤지의 적자인 동성왕이 즉위 한 이후 덕술 진로에게 파격적으로 병관좌평 겸 지내외병마사의 직을 맡기는 등 중요하는 것으로 보아(『삼국사기』 동성왕 4년 춘정월), 진씨는 대표적인 곤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성왕 12년(490) 남제에 작위를 요청하는 저근, 여고, 여력, 여고(『남제서』 열전 동남이 백제국), 남제에 조공사로 파견되는 내법좌평 사약사와 왕의 측근으로 경호를 책임지는 직분인 위사좌평에 임용되는 백가(『삼국사기』 동성왕 6년 추7월 및 8년 춘2월) 등도 곤지계로 분류할 수 있다.

27)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원년.

28) 무령왕이 등극하는 과정에 일어난 동성왕 시해 사건의 배후에는 무령왕이 있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정재윤, 앞의 논문, 1997; 김기섭, 『백제 동성왕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34, 2010).

IV. 곤지의 왜국 내 활동과 그 후예씨족

곤지는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일본서기』 등 한일 양국 사서에 도왜 사실만 전하고 있어 그의 왜국 내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일본서기』 웅략 5년 추7월조에 곤지가 왜국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다²⁹⁾는 기록과 곤지와 동성왕 이외에 백제로 귀국한 후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곤지가 귀국한 뒤에도 그 후손들은 왜국에 남아 곤지의 명맥을 이어갔음을 시사한다. 이에 그 후손들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곤지의 도왜 후 활동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보고자 한다.

다음 기록들은 곤지를 선조로 칭하는 후손들이奈良시대까지 정계에서 활약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 B-① 飛鳥戶造. 百濟國主 比有王의 아들 琨伎君에서 나왔다. <『新撰姓氏錄』河內國 諸蕃>
- B-② 左京人 造兵司少領史 正6위상 飛鳥戶造禰道에게 百濟宿禰의 姓을 내렸는데 그는 백제국 琨伎의 후예이다. <『日本三代實錄』6 清和天皇 貞觀 4년(862) 7월 28일조>
- B-③ 右京人 外從5위하 行主計助飛鳥戶造豐宗 등 남녀 8명에게 御春朝臣의 姓을 내렸다. 그 선조는 백제국인 琨伎로부터 비롯된다. <『日本三代實錄』7, 清和天皇 貞觀 5년 8월 17일조>

B-①의 飛鳥戶造씨는 왜왕권의 실무관료로서 飛鳥戶의 집단을 이끌고 있는 伴造였다. 飛鳥戶(아스카베)의 씨명은 安宿戶·安宿·飛鳥部라고도 하는데 河內國 飛鳥戶郡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다. 비조호조씨 일족은 河內國 安宿郡 및 高安郡에 본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 씨족의 원래 본거지는 안숙군이다.³⁰⁾ 따라서 하내 비조 지역에 곤지를 선조라 칭하는 일군의 세력이 존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B-②~③에서는 9세기 단계에 이르면 비조호조씨의 일족으로 百濟宿禰·御春朝臣을 사성 받은 인물들이 곤지를 선조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씨명을 ‘백제’로 칭한 것은 平安시대까지도 자신

29) 『일본서기』 웅략 5년 추7월 “軍君入京 既而有五子”. 여기서 ‘기이유오자’에 대한 해석은 ‘이윅고 5자를 두었다’로 해석하고자 한다(오계화, 『百濟 武寧王의 出自와 王位繼承』, 『한국고대사 연구』33, 2004, 252쪽).

30) 岸俊男, 『日本における戸の源流』, 『日本古代籍帳の研究』, 塙書房, 1973, 31~39쪽;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第5, 吉川弘文館, 1983, 470~471쪽.

들의 출자가 백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百濟宿禰씨는 藤原씨와 연결되며 淸和천황에 이르는 계보에도 등장한다.<그림 1> 참조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곤지 이외에도 比有王(毗有王)과 末多王(東城王)을 시조로 하는 전승을 갖고 있는 비조호조씨가 나온다.³¹⁾ 이것은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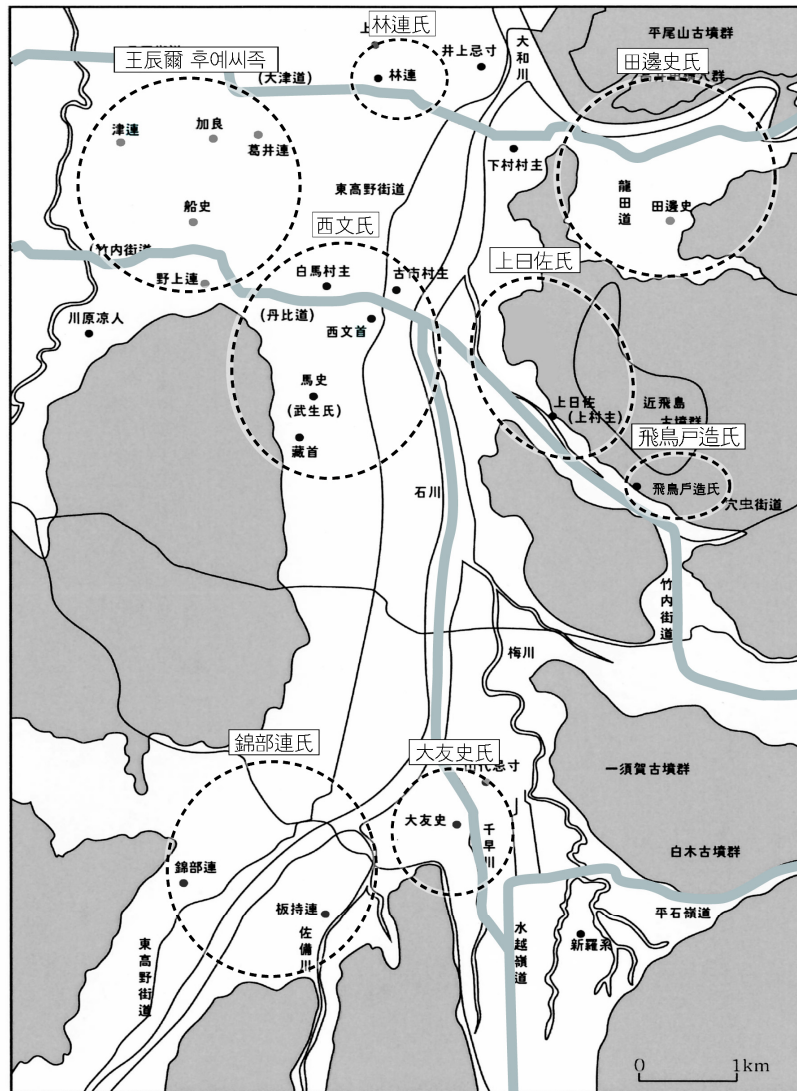


그림 1. 河內지역 백제계 씨족 분포도

31) 飛鳥戸造, 百濟國 末多王의 후예이다. <『新撰姓氏錄』河內國 諸蕃>; 飛鳥戸造, 百濟國 比有王에서 나왔다.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왕-곤지-동성왕으로 이어지는 같은 계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 右京과 하내의 高安郡으로 본거지가 다른데서 기인하다.³²⁾ 곤지야말로 이들 계보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고, 이 가운데 하내국 안숙군의 비조호조씨가 직계본종이라 칭하였다.³³⁾

곤지의 아들인 사마(무령왕)는 그가 왜국으로 출발한 그 해에 출생했기 때문에 도왜 당시 사마 이외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다면 말다(동성왕)를 포함한 4인은 곤지가 왜국에서 결혼하여 낳은 자식으로 볼 수 있다. 즉 곤지를 조상으로 하는 왜국 내의 씨족은 곤지를 따라 귀국하지 않은 그의 자손들의 후예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모계를 왜국 왕족으로 보기도 하지만,³⁴⁾ 단언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들 후예들은 곤지가 백제 현지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곤지를 조상으로 하는 혈연계보 의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927년에 편찬된 『延喜式』 神名帳에는 현재 곤지를 祭神으로 모시고 있는 飛鳥戶神社가 나온다. ‘明神大社’로서 860년 10월에 官社가 된 후, 880년 8월에는 봄가을 제사를 위한 제례비로서 神領田 1정를 사여받았다고 한다. 이 비조호신사가 있는 安宿郡(飛鳥戶郡-현재 大阪 남부의 羽曳野市·栢原市에 해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奈良縣 남부의 飛鳥(明日郷)에 대해 河内飛鳥(近つ飛鳥)라고 불렀다. 하내비조는 안숙군을 중심으로 안숙지역, 太子町·河南町에 이르는 磯長지역, 羽曳野市·藤井寺市에 있는 古市지역, 그리고 野中寺 남쪽에 펼쳐지는 寺山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안숙지역이 하내비조 중에서도 중심이다.

안숙군은 4세기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王仁의 후예라 주장하는 西文氏를 필두로 한 백제계 씨족들이 정착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후 5~6세기에 이르면 비조호조씨를 비롯해서 石川氏, 錦部氏, 田邊史氏, 王辰爾 후예씨족 등이 성장하고,³⁵⁾ 백제라는 동족의식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하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그림 2〉 참조)³⁶⁾ 이 지역의 문화는 바로

32) 사실 말다왕은 15세 즈음에 백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실제 왜국에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33) 이근우, 『일본서기』에 인용된 百濟二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34)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지왕의 왕비인 팔수부인이 왜계 출신일 수 있다는 연구(김기섭, 『5세기 무렵 백제 도왜인의 활동과 문화전파』,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2005, 227쪽; 홍성화, 『4~6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36, 2010, 26~27쪽)가 참조된다.

35) 하내비조의 전체 씨족수 중 한국계는 37%로 고구려가 5씨, 신라가 7씨, 백제가 23씨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안숙군에 분포하는 씨족은 14씨족인데 백제계 씨족이 飛鳥戶造·田邊史 등 9씨로 64%를 점하고 있다(山尾幸久, 앞의 책, 1989, 136~139쪽을 참고로 낸 필자의 통계임).

36) 자세한 것은 박재용의 논고(『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86, 2007)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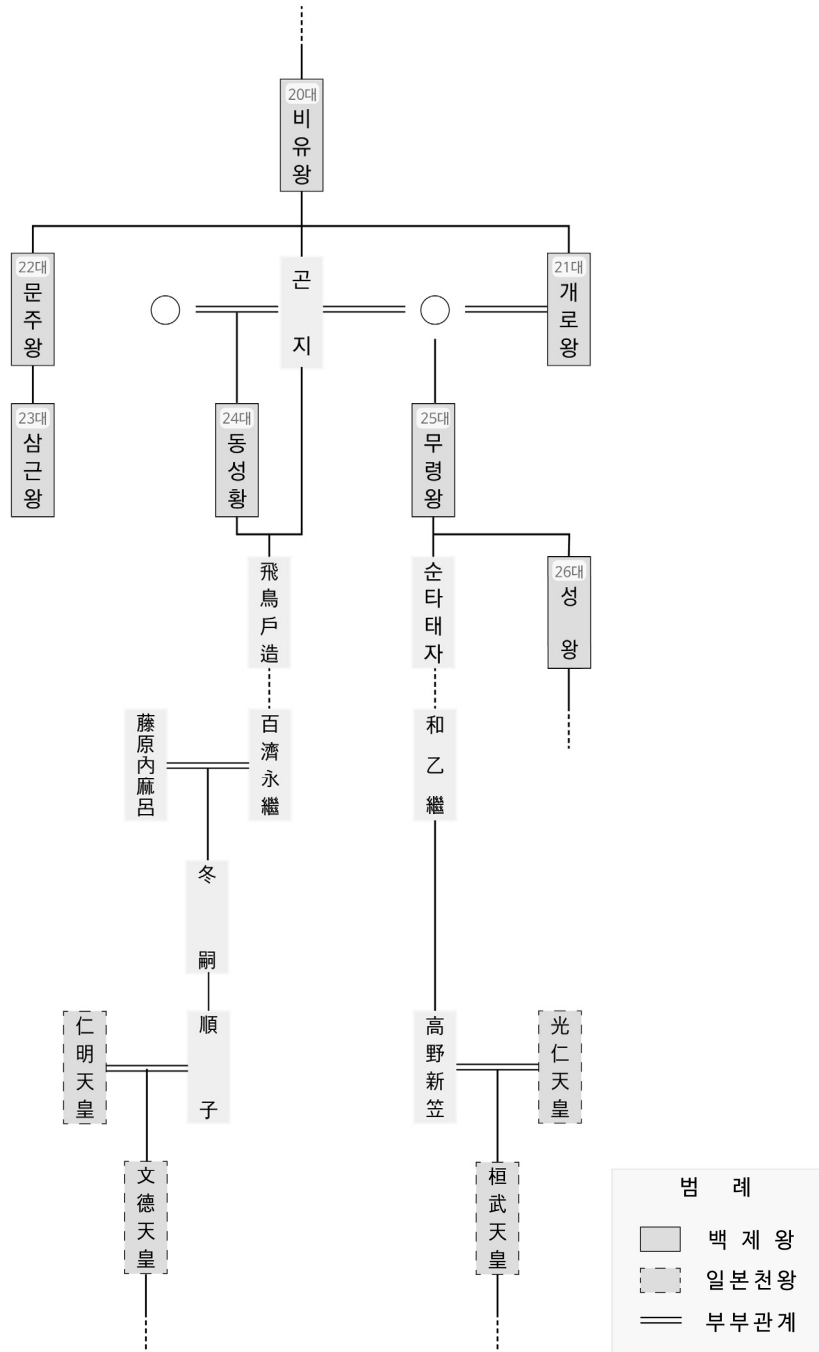


그림 2. 곤지 관련 계보

백제왕족인 곤지계를 중심축으로 창조된 백제색이 농후한 문화였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안숙군에는 나라시대 3개의 郷이 있었다. 上(賀美·加美)郷은 하비키노시의 飛鳥·駒ヶ谷 일대, 中(奈加·尾張)郷은 栢原市の 圓明·玉手·片山, 下(資母)郷은 백원시 國分으로 비정할 수 있다. 현재 비조호조씨의 묘역으로 알려진 飛鳥千塚고분군이 上郷에 소재하고 있다.³⁸⁾ 비조천총고분군은 구릉지대에 6~7세기에 걸쳐 축조된 고분군으로 분구는 10~20m 전후의 원분, 주체부는 황혈식석실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栢原市の 高井田山 유적에서 일본 最古의 황혈식석실분이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大和川과 石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대화정권의 기록, 물자의 보관과 수송의 중심지였다. 바로 이곳에서 무령왕릉 출토의 청동제 초두 및 동경과 비슷한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제품이 출토되어 그 피장자를 백제왕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³⁹⁾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비슷한 시기의 황혈묘가 산재하고 있어 공주 단지리의 황혈묘와 비교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⁴⁰⁾ 현 시점에서는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귀국하지 않은 곤지의 자식 가운데 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

7세대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에 왜국 왕실이나 귀족의 자제들이 성장하던 곳이 되기도 하였다. 천무천황의 부인인 지통천황이 어렸을 때 성장한 곳이 바로 비조호조씨 집안이다.⁴¹⁾ 지통천황대에는 주지하다시피 『일본서기』 편찬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로 百濟王氏를 비롯해서 백제계 사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⁴²⁾ 이렇게 보면 『일본서기』에 곤지의 도왜기록을 비롯한 백제왕 계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실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비조호조씨가 천황가와 친밀한 유대관계로 인해 가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7) 山尾行久, 『河内飛鳥と渡來氏族』, 『古代を考える·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9, 136~139쪽.

38) 笠井敏光, 『昆支王と飛鳥千塚古墳群』, 『백제문화』50, 2014, 6~7쪽.

39) 安村俊史, 『畿内初期横穴式石室にみる百濟の影響』, 『백제문화』50, 2014, 22~23쪽.

40) 朴大淳·池珉周, 『공주 단지리 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380쪽.

41) 土橋寛, 『持統天皇と藤原不比等』, 中央公論社, 1994, 105~107쪽. 한편 田邊史氏 집안에서는 藤原不比 등이 어렸을 때 양육되었다.

42) 박재용, 『『日本書紀』 편찬과 백제계 史官』, 『백제학보』6, 백제학회, 2011 참조.

V. 맺음말

곤지는 5세기 후반 왜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원의 처형을 계기로 왜국과의 관계유지라는 명목으로 왜국에 파견된다. 하지만 형인 개로왕의 실질적인 목적은 세력이 비대해진 곤지를 제어하고 왕위계승에서 배제시키기는 것이었다.

왜국에 파견된 곤지는 河內飛鳥 지역에 정착한 후 그곳의 백제계 이주민들을 보호·결속시키면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곤지는 장기간 왜국에 체재하면서 후손을 형성하게 되고, 백제내 세력과의 연결을 가지면서 국내외에 지지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백제의 웅진초기 대내외적 혼란한 속에서 동성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곤지의 백제와 왜국 내에서 다져진 정치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국 내에서는 飛鳥戶造氏라는 후예씨족이 곤지의 명맥을 잇게 된다. 비조호조씨는 河內國 安宿郡에 기반을 두고 대화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후 나라·헤이안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령관인들을 다수 배출하는데,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백제 곤지의 후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곤지의 후손들은 고대 일본에 백제색이 농후한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투고일 2020년 0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참고문헌

- 김기섭, 『백제 東城王의 즉위와 정국변화』, 『한국상고사학보』50, 2005.
- _____, 『5세기 무렵 백제 도왜인의 활동과 문화진파』,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2005.
- _____, 『백제 동성왕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34, 2010.
- 김수태,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백제학보』6, 2011.
- 김영심, 『백제의 ‘君’호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백제연구』48, 2008.
- _____, 『개로왕대 정국의 동향과 체제정비』,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개로왕의 꿈, 대국 백제』, 한성백제박물관, 2016.
- 김현구, 『백제와 일본간의 왕실외교-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문화』31, 2002.
-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 _____, 『무령왕대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 『백제무령왕릉』,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1.
- 朴大淳·池珉周, 『공주 단지리 유적』,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6.
- 박재용, 『『日本書紀』 편찬과 백제계 史官』, 『백제학보』6, 백제학회, 2011.
- _____,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한국고대사연구』86, 2007.
- _____, 『일본 사료로 본 백제 熊津시기 왕계』, 『한일관계사연구』61, 한일관계사학회, 2018.
- 서보경, 『도왜한 백제계 한인과 하내-백제 왕족의 도왜와 관련하여』, 『사총』6, 2009.
- 양기석, 『三國時代 人質의 성격에 대하여』, 『史學志』15, 1981.
- _____, 『웅진천도와 중흥』, 『삼국의 정치와 사회』Ⅱ, 국사편찬위원회, 1995.
- _____, 『5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연민수, 『5세기후반 백제와 왜국-곤지의 행적과 동성왕의 즉위사정을 중심으로-』, 『일본학』13,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4.
- _____,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 오계화, 『百濟 武寧王의 出自와 王位繼承』, 『한국고대사연구』33, 2004.
- 윤용혁, 『무령왕 출생전승에 대한 논의』, 『백제문화』32, 2003.
- 이근우, 『『일본서기』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기동, 『중국사서에 보이는 백제왕 牟都에 대하여』, 『역사학보』62, 1974.
- 이도학,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1996.
- _____,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한국사연구』50, 1985.

- 이재석, 「곤지의 도왜시점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 『백제문화』30, 2001.
- 이정희, 「古代 日本의 采女制度」, 『日本學報』44, 2000.
- 정재윤, 「웅진시대 백제 정치사의 전개와 그 특성」,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백제 왕족의 왜 파견과 그 성격-곤지를 중심으로-」, 『백제연구』47, 2008.
- _____, 「文周三丘王代 解氏 세력의 동향과 昆支系の 등장」, 『사학연구』60, 2000.
- 주보돈, 「熊津都邑期 百濟와 新羅의 關係」, 『古代東亞細亞와 百濟』,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3.
- _____, 「개로왕의 체제개혁과 그 한계」, 『한성도읍기의 백제』, 2007.
- 홍성화, 「4~6세기 백제와 왜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36, 2010.
- _____, 「웅진시대 백제의 왕위계승과 대외관계」, 『백제문화』45, 2011.
- _____, 「백제와 왜 왕실의 관계-왕실간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 鈴木靖民,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政權」, 『講座 日本歴史』1, 東京大學出版會, 1984.
- 笠井敏光, 「昆支王と飛鳥千塚古墳群」, 『백제문화』50, 2014.
- 山尾幸久,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書店, 1975.
- _____,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 _____, 「河内飛鳥と渡來氏族」, 『古代を考える·河内飛鳥』, 吉川弘文館, 1989.
- 岸俊男, 「日本における戸の源流」, 『日本古代籍帳の研究』, 塙書房, 1973.
- 安村俊史, 「畿内初期横穴式石室にみる百濟の影響」, 『백제문화』50, 2014.
-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第5, 吉川弘文館, 1983.
- 土橋寛, 『持統天皇と藤原不比等』, 中央公論社, 1994.
- 坂元義種, 「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朝鮮史研究會論文集』4, 1968.

Abstract

Gonji who visited Japan, and the descendants

Park, Jae-Yong

The Gongji was sent to Waeguk for a long time in the late 5th century. This was a measure of King Gaero to restrain Konji's forces in Baekje and to inherit the throne to his children. After settling in the Kawachi-Asuka area, Konji protected and united the Baekje immigrants and built an economic foundation. It is believed that Konji formed descendants while staying in Waeguk, and formed a support bas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y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forces in Baekje. Based on this foundation, his son, King Dongseong, was able to take office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haos in the early days of Woongjin.

In Waeguk a descendant clan named Asukabenomiyatuko-si succeeds Konji. Asukabenomiyatuko-si grows up by form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Yamato Kingship based on the Asukabe-gun Kawachi-guk. Later, in the Nara and Hyeian era, many bureaucrats of statute were produced, and their descendants continue to emphasize that they are the descendants of Baekje Gonji. These descendants of Gonji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culture rich in Baekje color in ancient Japan.

Key Words : Gonji, King Gaero, King Dongseong, King Muryung,
Asukabenomiyatuko(飛鳥戶造), kawachi(河内), Asukabe-gun
(安宿郡)

